

“중재안 진짜 몰랐나” 檢일각 반발...김오수, 직접 설명한다

중재안 발표 직전 ‘김오수 발인’ 도마 위 “국회·여론 원치 않는 권력수사 안 해야”

김오수 검찰총장이 최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중재안이 나오게 된 경과 등을 언론을 통해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

검찰 내 일각에선 김 총장이 중재안이 발표되기 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진행 과정에서 중재안 내용을 미리 안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김 총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중재안을 미리 알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오는 25일 오

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한다.

김 총장은 지난 22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자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앞서 17일에도 사직서를 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그는 사직서를 내기 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설명을 하며 “국민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를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김 총장은 “권력수사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등 내용을 담은 박 의장의 중재안이 나오자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특히 김 총장이 지난 21일 오후 박 의장을 만나 40여분 동안 면담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 의장으로부터 중재안에 대해 미리 듣고 이같이 답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박영진(48·31기) 의정부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는 김 총장의 ‘권력수사’ 발언과 중재안 간 유사성을 짚으며 의심의 시선을 던졌다.

그는 “처음에는 그 의미가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인 줄로만 알았다”면서 “그런데 중재안의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2대 범죄로만 대폭 축소하고 보완수사권도 제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이라고 했다.

이어 “총장께서 얘기한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은 결국 검찰 수사권 박탈이 맞습니까? 아님니까”라며 “그간 외쳤던 검수완박의 위험성은 거짓말입니까. 국회의 상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만일 김 총장이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재안을 박 의장으로부터 미리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 구성원의 질타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 총장 측은 이날 “국회 중재안에 대해 정말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선 보도자료로 배포한 개선안에 대한 보고

만 이뤄졌고 중재안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중재안의 내용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한편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에선 김 총장을 시작으로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광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며 중재안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유나 기자



거리두기 해제, 여유로운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24일 오후 경북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백신 맞고 숨진 남편 부검도 못 해...일상 회복 무슨 의미냐”

“건강하던 사람”...담당의도 백신 이상반응 소견

아침 일찍 집을 나간 남편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은 날을 김영순(가명·54)씨는 생생히 기억한다. 황급히 현장을 찾은 김씨가 구급차에 누워있는 남편을 흔들며 깨웠지만 그는 이미 몸이 축 늘어진 상태였다.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은 남편은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뒀다.

격정 하나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는 김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곳곳에 남편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모르겠다”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힘들 것 같다”고 흐느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정부도 이에 발맞춰 방역 정책을 정비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그러나 이미 가족을 잃었거나 그들이 누워만 있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이들은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에 되려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

김씨의 남편 박정남(가명·59)씨는 지난해 12월19일 운전 중 발작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3차 백신을 맞은 뒤 5일째 되는 날이었다.

김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일요일이라 의사도 없고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응급 처치가 늦었다”고 돌아봤다. “빨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김씨에게 의사는 가망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 날은 부부의 28번째 결혼기념일이었다.

박씨는 그대로 수술을 받은 뒤 약 3주를 버텼다. 도저히 남편을 그대로 보낼 수 없었

던 김씨는 장기기증을 고민했지만 이미 장기는 망가진 상태였다. 올해 1월14일 아내와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씨는 결국 눈을 감았다.

갑작스레 남편을 떠나보낸 김씨는 죽음이 백신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의심한다. 박씨는 경계성 당뇨·혈압 외 다른 지병은 없었고, 평소 술·담배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아내에게 남편은 아픈 모습을 보인 적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다. 담당 의사 역시 진단서에서 “코로나 주사 후 발생한 질환으로 백신주사 관련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하지만 박씨의 사망과 백신 인과관계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김씨가 부검을 하지 않은 채 남편을 화장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남편이 쓰러진 사실을 신고한 뒤 관할 보건소가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주장한다.

기다리려던 보건소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은 남편의 49세를 앞둔 때였다. 보건소는 그제서야 남편의 사망과 부검 여부를 물었다.

김씨는 “부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우리가 너무 경황이 없어 보여서 차마 그 말을 못 했다고 하더라. 그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씨는 결국 백신접종과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 기준 분류 중 4-2(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판정을 받았다.

남편이 사라진 뒤 김씨의 일상은 무너졌다. 부부가 운영하던 식당에도 나갈 수 없었다. 16년 동안 함께 손때 묻혀서 일군 가게에는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단골손님들은 요즘도 남편을 찾는다고 한다. 몇번이고 설명하는 것은 가족들의 몫이다. “남편에 대해 물어보거나 저를 위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한 번이지만 저는 수십 번을 듣는 게 아니냐, 그게 너무 두렵고 힘들다”고 김씨는 말했다.

하나뿐인 딸도 아빠의 부재를 감당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직장까지 그만두고 어머니 곁에 있었지만 상처는 낫지 않았다. 심한 우울감에 모녀는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김씨는 “딸도 웃지 않고 저도 주위에서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자꾸 치료를 권했다”며 “요즘 안 갔더니 다시 우울감이 올라와 다시 가려 한다”고 말했다.

남편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서 김씨가 바라는 것은 많지 않다. 정부의 사과다. 김씨는 “대통령이 신년인사에서 정부를 믿고 맞아라,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있지 않냐”며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가기 위해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건데 이런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지금도 백신 원인 규명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그는 “내 일이 아니고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다”며 “(남편의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나 힘이 든다”고 했다.

김재환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